



1991년 10월호  
**성도의 빛**

발간장소  
예수그리스도  
교회



### — 표지 설명 —

교회 회원이 된 레닌그라드의 엘레나 스톨라야 자매(26세)는 복음 덕분에 자신의 삶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친구 및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형성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소련에서의 주님의 복음”  
 10쪽 참조  
 사진 : 질스 에이치 플로렌스 이세

### — 어린이란 표지 설명 —

스웨덴의 막달레노 닐슨 자매는 달리기 및 체조에 재능이 있어서 각종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를 얻기도 한다.  
 사진 : 리차드 엠 롬니

##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어느 길을 따라 가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

삶에 필요한 지식 게리 지 펠트 ..... 8

소련에서의 주님의 복음 질스 에이치 플로렌스 이세 ..... 10

교회는 어디에? 제임스 이 파우스트 ..... 26

엘리어트 자매의 새로운 인생 제이 알 리만 ..... 32

예수님이 살았던 땅, 제2부 ..... 34

유끼오와 준교 후지다께 : 독창적인 가가호호 방법

짐 마쯔모리 ..... 48

## 청 소 년 란

이것이 정말로 참되다면 어찌지? 데릭 프리스 ..... 22

존경할 만한 사람 자넷 토마스 ..... 42

##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 1

가족 지침서 : 자녀에게 봉사에 대해 가르침 ..... 18

방문 교육 메시지 : 가정-영적인 성장의 중심지 ..... 25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일본에서의 교회 역사

말린 알 리버트 회장 ..... 65

교회 및 지역 소식 ..... 67

## 어 린 이 란

몰몬경 이야기 : 엘마는 복음을 가르쳐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음 ..... 50

단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레슬리 에딩톤 ..... 52

함께 나누는 시간 : 교회 가면 로럴 롤핑 ..... 56

탐험 : “나는 무엇입니까?” 멜리사 블랜차드 ..... 58

템플 스퀘어를 찾아서 ..... 60

우리들의 친구 : 스웨덴 해빙계에 사는 매그델리나 닐슨

로런스 커민스 ..... 62

## 1991년 10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테프트 맨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과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랭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그로버그,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07권, 제28권, 제10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1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90 320 Printed in Korea 10/91

## 애독자 편지

### 캐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세이도 노 미찌(일본어판)를 정기 구독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 1990년 9월호에 실린 트리나 해즐우드의 "캐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란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년이었던 트리나는 같은 또래의 교회 회원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게 되자 몹시 기분이 언짢았으나,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한 결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그와 같이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궁이 가겠으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복음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들은 약하고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트리나가 박해를 견디어 내고 용서의 중요성을 배운 것을 읽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지만, 저는 저를 냉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트리나를 존경하며 저도 그러한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 마나미 오무라

일본 고베 스테이크 가도가와 와드

### 거룩한 고리

저는 개종자입니다. 저의 개종은 제과점에서 주변 사람들보다 두드러져 보이는 어떤 젊은이를 주목하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젊은이가 남들과는 달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데 그의 동반자가 합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나고 묻자 그 사람들은 저의 아파트를 방문하겠다고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에릭 도르 헨슨 장로와 파울로 알베스 다 실바 장로가 저의 집을 방문해 있는 동안 웬일인지 그들에게 호감이 갔으며 함께 있으니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신을 통해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영감받은 것이며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성신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느 자매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와 함께 1990년 9월 연차 대회의 여성 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참조)

말씀을 하면서 잭 회장은 구세주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성신을 보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저를 연결해 주는 그 거룩한 고리는 제 개인을 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도록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 아시르 라포소 데 파리아

브라질 상용 파울로 스테이크 벨라 비스타 와드

편집 노트 :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 지방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와 기사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 어느 길을 따라가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 까

만 리본같이 펼쳐진 아스팔트 도로가 유타주 북부의 산맥을 지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와서 다시 남쪽을 향해 굽이쳐 나아갑니다. 이 도로의 공식 명칭은 15번 미주간 고속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도를 받기 위한  
아무런 방편도 마련해  
놓지 않으신 채로  
영생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도입니다.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여러 가지 상품을 날라주며, 여행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몇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를 몰고 이 15번 고속 도로로 들어섰던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진입로에서 저는 세 명의 무전 여행자가 행선지를 쓴 표지판을 들고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번째 표지판에는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라고 쓰여 있었으며, 두번째 표지판에는 “아이다호 보이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끌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한 것은 세번째 표지판이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치켜 들고 있는 표지판에는 캘리포니아라고도 아이다호라고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어디든지 갑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무료로 태워만 준다면 어느 곳이라도 만족스럽게 여기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로 차를 타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입니까? 계획도 목표도 목적도 없는 행동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곧 꿈과 기회도 찾지 않고 생의 목적도 성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건너야 하는 넓은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한 후  
항해사들이 기록한 경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젊은 무전 여행가와는 달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언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린도전서 9:24) 우리는 또 전도서에 나와 있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전도서 9:11)라는 현명한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곳에 이를 것인가? 나의 운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생각할 때에, 저는 어렸을 때 즐겨 하던 한 가지 경주가 생각납니다. 열 살쯤 되었을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머니칼을 갖고 다니면서 버드나무의 연한 부분으로 작은 장난감 보트를 만들어서 삼각형 모양을 한 천으로 돛을 만들어 배에 달고 비교적 물살이 센 프로보 강에 가서 그 배를 띄워 시험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를 따라 강둑을 뛰어 내려가면서 물살이 센 곳에서는 배가 마구 흔들리고 물이 깊고 잔잔한 곳에서는 평화롭게 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한번 앞선 배가 거의 결승점에 가까이 가도록 줄곧 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살을 타고 내려가던 배가 갑자기 커다란 소용돌이에 말려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뒤집힌 배는 소용돌이를 따라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다시는 제 길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배는 소용돌이 주변에 깔려 있는 끈적끈적한 이끼에 찰싹 달라붙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그러한 장난감 배에는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용골도 없으며 방향을 조정하는 돛줄이나 동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자와 같이 종착지가 “어느 곳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물결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신성한 표시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기 위해 이 지상에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유를 밝혀 내고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이 청결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하늘집을 떠나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삶의 경주를 끝내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도를 받기 위한 아무런 방편도 마련해 놓지 않으신 채로 영생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작고 조용한 음성이며, 또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바다를 훌륭하게 항해하였던 사람들이 쓴 경전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한 어떻게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행복에 있다. 행복은 인간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길을 따를 때 얻게 되며, 그 길은 덕과 의로움과 신앙과 성스러움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0쪽) 이 말씀 속에는 잘 정의된 목적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 주시는 경우는 대체로 그 자녀가 의로운 일을 할 때라는 사실을 유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엠마오로 가는 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던 여리고로 가는 길, 리하이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요셉 스미스가 카테지로 가던 길과 브리감 영이 성도들의 안식처인 계곡을 향해 가던 광야의 길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일단 결정한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는 갈림 길이나 돌아가는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시험하는 시련과 유혹이 불가피하게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치를 바라고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잘못 들어서면 파멸과 영적인 사망에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부도덕의 늪과 죄의 소용돌이와 주님의 영에 위배되는 철학을 피하도록 합시다.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저 교활한 악사는 지금까지도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하며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꺾어 내어, 부모의 권고를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안전한 가르침을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음조는 매우 세련되고 아주 감미롭지만 그 값은 영원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성을 거부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랐다가 그만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의 카인이 그러했고, 후에는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넷째,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견습공은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을 얻지 못한 법관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든지 던져 버리든지...  
 먼 곳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든지  
 지금 서있는 곳에 만족하고 있을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에드가 에이 케스트, "당신")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으며,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지닌 사도가 되었는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만행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9)라고 말씀하셨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연민과 사랑과 순종과 회생과 헌신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으로 랜달 엘스워스 장로가 있습니다. 랜달 엘스워스는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큰 지진으로 인하여 대들보가 그의 등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고 신장이 크게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엘스워스 장로는 약 만 팔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대지진의 와중에서 상처를 입은 유일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응급 치료를 받은 후에 고향인 메릴랜드의 록빌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랜달이 그곳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텔레비전이라는 기적을 통하여 한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걸을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걷지 못하지만 걸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하겠습니다."

기자는 마이크를 손에 든 채 계속해서 "내가 알기로 미국 대통령께서 직접 회복을 비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말고 다른 분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한 통 있는데, 그것은 저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신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이 보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편지가 가장 소중합니다. 저를 위해 드리는 그분의 기도와, 가족과 친구와 동료 선교사들의 기도에 힘입어 저는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아마 저 장로는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중한지 모르고 있는가 보군. 공식적인 치료 보고서를 보면 저 상태로 과테말라에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앙과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에 묻혀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문과 텔레비전 카메라는 시간이 지난 일에는 관심을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한  
인터뷰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젊은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기적이란 과거에나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지 않지만, 러드야드 커플링의 다음 시가 랜달  
엘스위스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요와 아우성이 그치고  
두령과 왕이 떠나도  
그대는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서 있다.  
우리가 행여 잊지 않을까 하여  
만군의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네.  
(“후략”)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지닌 랜달  
엘스위스 장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다리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랜달은 그 회복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바쁘게 생활하려고 애썼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치료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두 다리로 다시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과에서는 랜달 엘스위스의 놀라운  
회복을 보고는 그가 과테말라로 돌아가 선교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낙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저는 우선 침실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랜달 엘스위스는 자신이 부름을 받고 봉사하던  
선교부로 돌아가기 위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회의와 많은 의심을 뒤로 떨쳐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신앙의 기적과 굳은 결의에 대한 보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둔 채로  
임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는 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를 극복한 현대의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엘스위스 장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랜달 엘스위스와 같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을

알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굽은 길을  
피해 가고, 생의 승리를 얻기 위해 때로 요구되는 커다란  
신앙과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준비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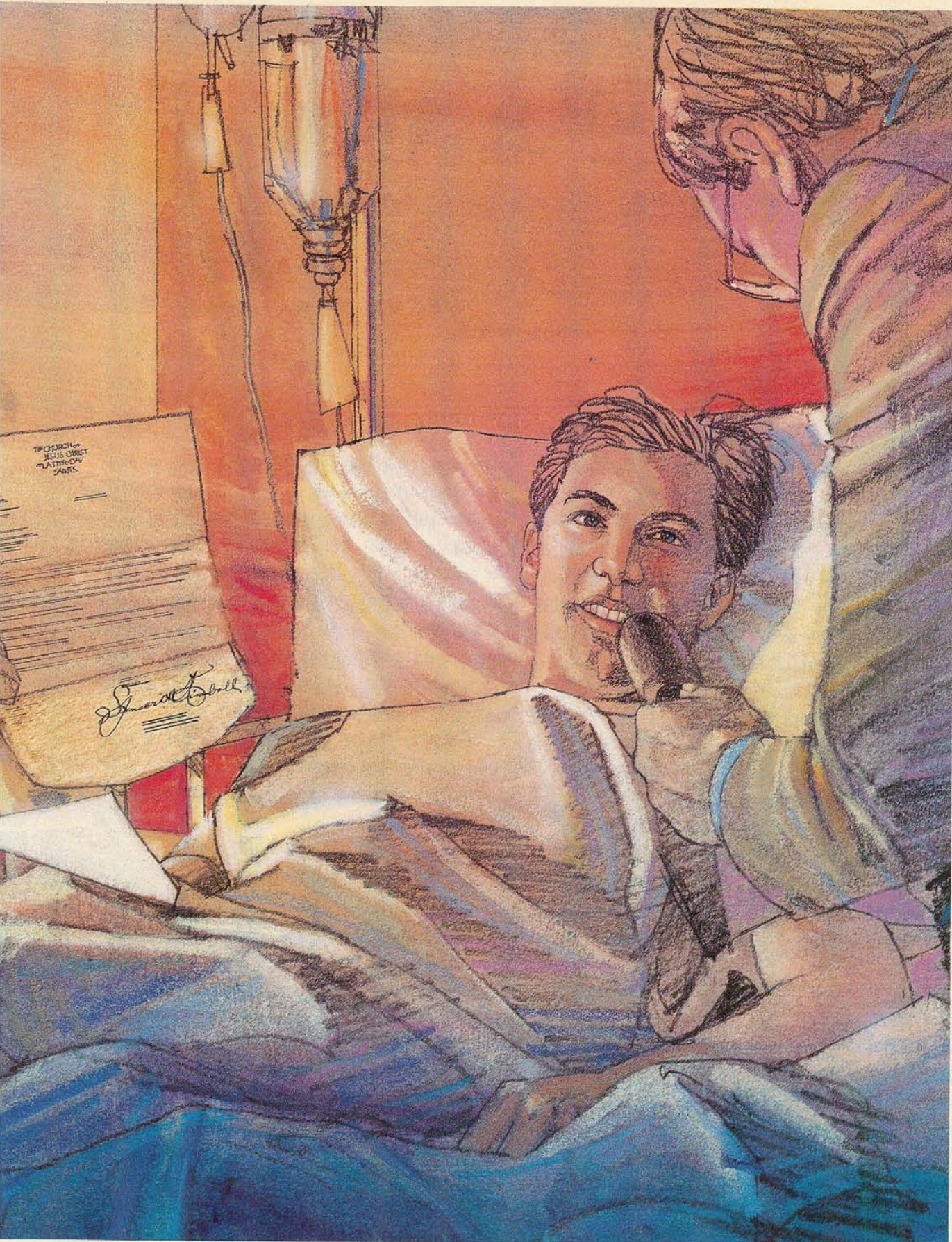
우리 모두 필멸의 여행이 끝날 때에, “내가 선택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라고 한 바울의 말씀을  
되풀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결코  
멸망되지 않을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며, 영원하신  
심판자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태복음 25:21)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여행을 끝마칠 때, 처처 없이  
“어디든지 갑니다”가 아니라 하늘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곳에 이를 것인가? 나의  
운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의 인도를  
받으며 경전을 통해 지식을 얻는 기회를 주셨다.
3.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
  - 끊임없이 노력한다.
  - 일단 결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한다.
4.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성공적으로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역시 영원한 행복으로 통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THE OFFICE OF  
JESUS CHRIST  
IN ATTENDANCE  
SALES

*General Bell*

# 삶에 필요한 지식

게리 지 펠트

그 날 하루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 위로 차를 몰고 가면서 속으로 '이제 15분만 더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일몰이 지는 쪽을 향해 뻗은 다리 난간 사이로 보이는 강물은 아주 평화롭게 보였다. 그때 어떤 남자가 난간 바깥쪽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머리는 도로 표면 위로 보일 듯 말 듯하였다. 나는 차를 멈추고 경찰서로 무전 연락을 한 뒤 난간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다리에 매달린 그 젊은 남자가 경고했다. 그 남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렸다. 그 남자도 내가 상황을 알아챘음을 아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아차 하는 순간이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남자가 자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리하였다. 경찰관 훈련을 받을 때의 기억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시간을 끌어라. 그에게 이야기를 시켜라. 그를 흥분시키지 말아라. 나는 잘못해서 그 청년이 실제로 자살해 버릴까봐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을 벌기 위해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씨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침착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침착하게 "그런 것 같지 않소."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시간은 내 편인 것 같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게리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티브"라고 대답했다. "왜 알고 해요?"

그 몇 초 동안 나는 이전에 남들과의 대화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불과 몇 초가 흘렀지만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인도를 구하였다. 그러자 곧 마음이 평온해지며 확신이 섰다. 왜 스티브는 그러한 위안을 느낄 수 없는 걸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인생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 주는 신성한 진리를 간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스티브,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당신을 도와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날 도울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그는 대답했다.

"스티브, 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당신에 관해 얘기해 보세요."

"무슨 뜻이죠?"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결혼했습니까?"

"했어요."

"애들이 있나요?"라고 나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스티브는 5살난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다른 경관들이 도착한 것을 보고 이내 멈추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요?" 스티브는 다시 목소리가 긴장되면서 물었다.

나는 그 경관들에게 뒷 쪽에 가 있도록 손짓으로 신호했다. 그리고 스티브에게 "그들은 내 친구들이요. 그 사람들도 당신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오." 그가 말했다.

"걱정 말아요. 그렇게 할테니까."라고 내가 대답했다.

스티브와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여전히 다리 바깥쪽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2m 정도 떨어진

# 의사소통소 으로 입주



길가의 경계석 위에 앉았다. 우리는 그의 가족과 성공적인 컴퓨터 회사의 기술자였던 그의 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멋진 인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지녔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그를 흥분시켜서 뛰어내리게 하지 않기를 빌며 할 말을 찾아보았다.

나는 다른 경관들이 구조 태세를 취하려 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스티브에게 이야기를 시키기 전부터 그와 내가 함께 악수를 나누게 되리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영으로부터 오는 느낌이었기를 바랬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좀 더 대담하게 말했다. “스티브,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스티브가 대답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내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군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는... 나는... 나는 마치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던 것까지 말하고 싶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계속 기도하며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청년에게 말을 하였다. 이토록 중요한 일에 성신의 인도를 느끼는 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기뻐했다. “하나님을 믿나요?” 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라고 스티브가 대답했다.

“계십니다. 스티브.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죠?” 그가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로 갔다. 스티브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난간 위로 기어올라왔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예.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나서 잠시 주저하더니 “게리”라고 내 이름을 불러 주었다.

주님의 인도로 나는 스티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생애는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나의 간증을 그와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식을 통해 그는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

경찰관인 게리 지 펠트는 켄톤 워싱턴 노스 스테이크의 노스 밴드 와드의 회원이다.

# 소련에서의 주님의 복음

질스 에이치 플로렌스 이세



위: 말일성도의 새 세대인 레닌그라드 지부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오른쪽: 넬리와 아이모는 소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형적인 핀란드 사람이다. 레닌그라드에 사는 이렌느 맥시모바 자매(중양)가 침례받던 날 그들이 참석하였다.

“하 나님은 없다.” 동유럽에 사는 전주민에게 수없이 반복되어 가르쳐 오고 있는 메시지이다. 선생님과 정부 지도자는 물론 심지어는 부모들조차 이런 말을 무조건적으로 가르쳐 왔다. 무신론을 거의 반세기 동안 유럽의 여러 곳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소련 및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을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왔다.

최근의 변화로 인해 바로 그러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곳곳에 살고 있는 충실한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고 있으며, 갑작스레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소련 국경 지방에 있는 핀란드 헬싱키 스테이크, 라핀란타 와드 회원인 아이모 야코는 말한다. 아이모와 그의 아내 넬리는 소련 내에서 시작된 초창기 선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들은 소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 핀란드로부터

아이모는 노를 만드는 핀란드 사람이며, 넬리는 국제 탁구 선수권자로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몇년 동안, 남편과 저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라고 넬리는 말을 시작한다. 넬리는 폴란드에서 출생했다.





“1989년 8월에 우리는 소련인 세 가족과 함께 소련 영내의 카레리까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인 카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밤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행중 세메오노브스 가족이 우리가 지닌 인생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인 안드레이씨는 20대 중반으로 매우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영적인 것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이씨는 우리에게 레닌그라드에 사는 그의 형 파벨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벨씨와도 우리가 지닌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좀더 친하게 되자, 안드레이와 파벨이 둘 다 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음과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안드레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해서, 카누 여행이 끝난 몇 달 후, 우리는 안드레이 부부와 파벨 부부에게 핀란드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지금은 비보르그 지부장인 안드레이는 당시 야코 형제의 초청으로 핀란드를 방문했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야코 형제 가족을 만나기 전에 저는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또는 러시아 정교의 교회를 몇 번 방문한 경험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만이 공정한 사회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추구하고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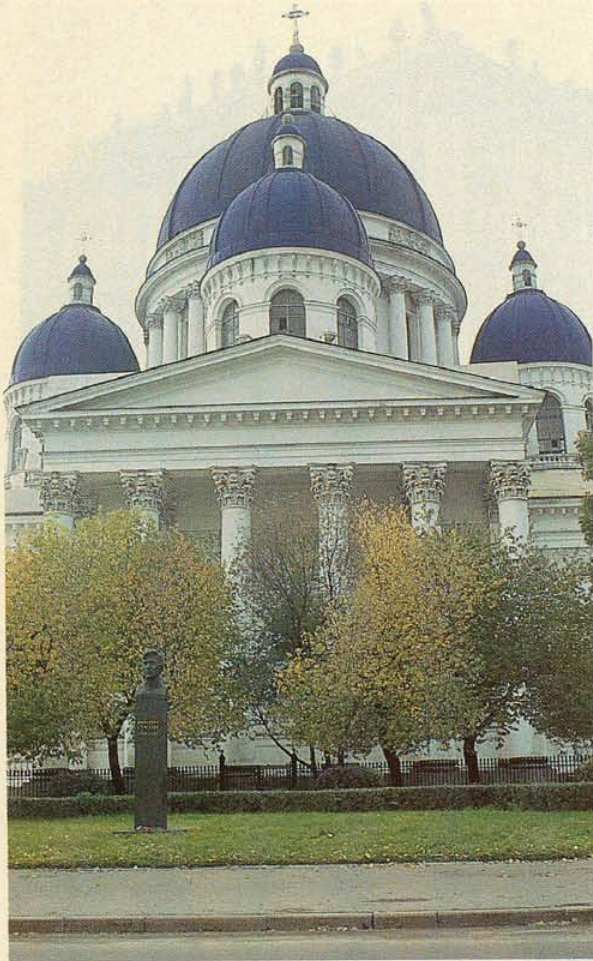
“저는 라핀란타에서 버트 도버 장로와 존 웹스터 장로를 만났는데, 그때 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집으로 가서 물론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같은 책을 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1990년 3월에 안드레이는 침례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에 그는 얼어 붙은 발트해에서 아내 마리야나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파벨과 그의 가족 또한 레닌그라드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교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파벨은 하나님과 인간 생활의 신성한 본질을 알게 된 이후부터 개업의료로서의 그의



**왼쪽:** 말일성도 친구들과 교회에 참석한 유리와 루드밀라 테레비넨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위:** 레닌그라드의 헤르미타즈 박물관은 이백 오십만 점에 이르는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아래:** 18세의 타마라 에피모프는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으며, 다시 이 복음을 어머니 갈리나(좌측)와 열두 살 위의 형 피에테르, 그리고 아버지 비야차슬라브에게 전해 주었다. 아버지는 현재 레닌그라드 제일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위: 지난 45년 동안 레닌그라드에 있는 이 사원과 비슷한 사원들이 박물관, 스케이트장, 또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오른쪽: 레닌그라드에 사는 23살 된 발레리 포마자노프는 교회가 그가 찾고 있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생활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안드레이는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은 이후로 자신이 느낀 새로운 힘에 대한 고마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일성도의 교리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준이 너무 높아 그에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표준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복음을 접했을 때,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헝가리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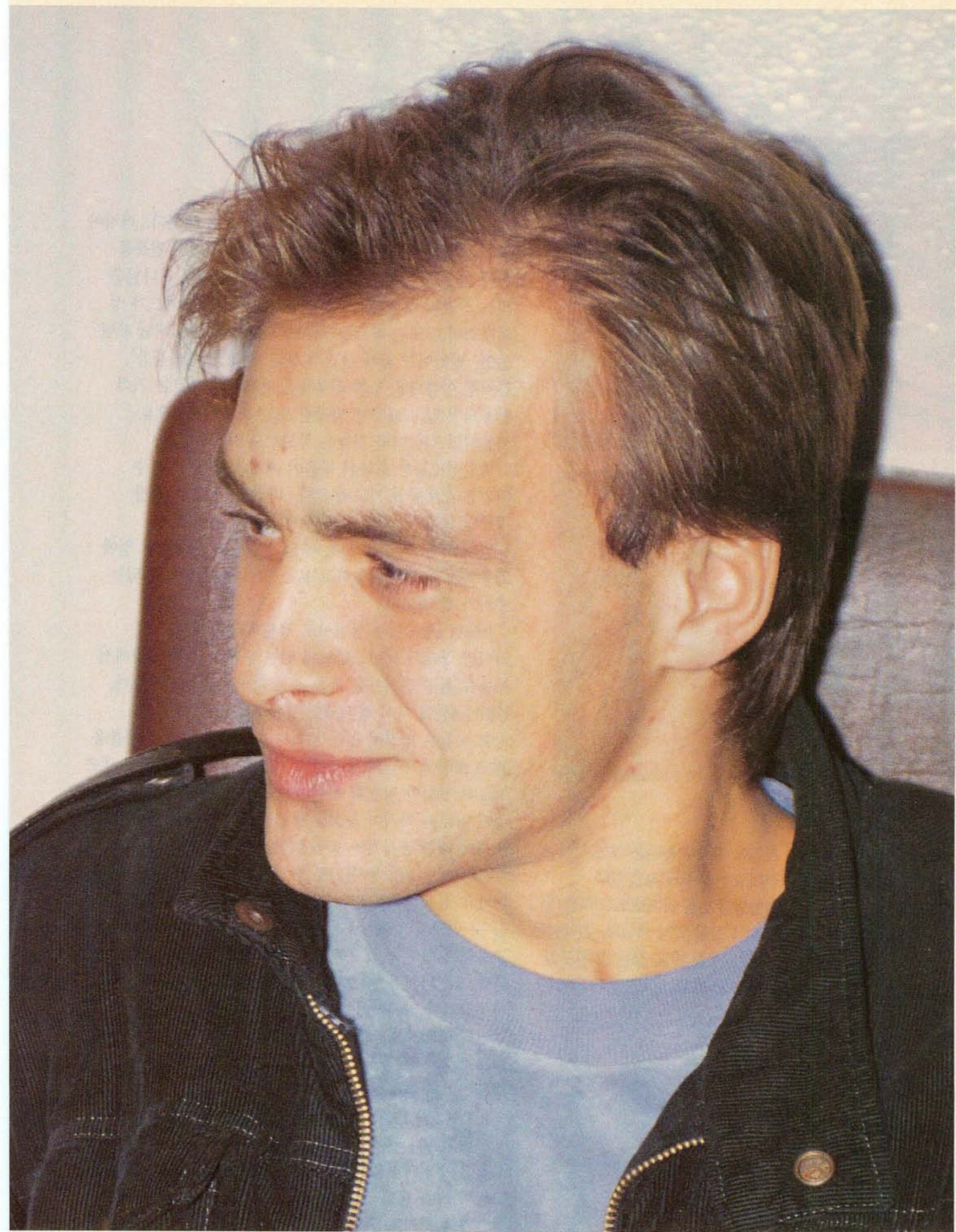
서메오노브스 가족처럼 다른 소련 사람들도 나라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회복된 복음을 배웠다. 레닌그라드에 사는 유리 테레비넨과 그의 아내 루드밀라는 초창기에 침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속한다. 그들은 헝가리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는 동안인 1989년 가을에 교회에 들어왔다. “친구 가족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라고 유리는 말한다. “거기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및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목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을 느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방문하였던 다른 교회에서는 의식과 언어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아 왔으나 이 교회에서는 제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것을 통해 이 교회의 사람들과도 더욱 친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레닌그라드로 돌아온 테레비넨은 헬싱키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당시 비보르와 탈린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던 핀란드 선교부의 미컴 선교부장과 그의 보좌인 유시 캠페이넨 형제와 접촉을 하였다. 그들은 레닌그라드에 있는 테레비넨과 다른 회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까지 이들 세 도시에 여러 개의 작은 지부들이 세워졌다.

유리는 레닌그라드에서 초대 지부장이 되었으며, 후에 그 지부는 총 회원이 160명이 넘어 두 개의 지부로 분리되었다. 지금은 모스크바에도 지부가 조직되었다.







위 : 소련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름다운 많은 사원과 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한창 복구되고 있다.

아래 : 레닌그라드 대학교 학생인 파벨 아가포노프(좌측)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 침례받은 후, 그는 복음을 동료 학생들에게 전했다. 같은 방 친구인 블라디미르 세스타코프와 안드레이 크로모프스키가 교회에 들어왔다.

## 주님의 손길

수 세기 동안 기독교가 러시아에서 꽃을 피웠다. 러시아 정교회의 사원들이 이 나라의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물 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레닌그라드가 성 피터스버그 또는 페트로그라드라 불리웠으나, 지난 45년 동안, 반짝이는 금색 등근 지붕과 성화 및 세공품을 간직한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은 예배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박물관 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것들은 창고로도 사용되었다.

말일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개방 정책인 클라스노스트로 인해 종교적 부흥이 오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님의 손길이 세상적인 일에 조용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좀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1903년 8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란시스 엠 라이만 장로가 레닌그라드에 있는 황제의 여름 별장에서 무릎을 꿇고 러시아를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했으며, 1989년 4월에 다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같은 별장에 있는 보리수와 잣나무 숲에서 무릎을 꿇고 소련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넬슨 장로와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며 유럽 지역 회장인 한스 비링거 장로가 러시아 공화국의 관리들과 접촉을 계속하여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핀란드 헬싱키 동 선교부가 개설되기 이전인 1990년 3월 이래로 선교사들은 단기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소련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슬라브 언어학 교수이며 현재는 선교부장인 게리 엘 브라우닝 장로는 북쪽으로 거의 500킬로미터나 떨어진 헬싱키의 사무실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레닌그라드와 탈린, 비보르그에 있는 지부들과 모스크바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1990년 9월 19일, 소련 중무 평의회회의 에브게니 브이 체르네초프는 링거 장로에게 평의회가 레닌그라드 지부의 등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 주었다. 물론 각 단위 조직이 그들이 속한 공화국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승인이 좀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 레닌그라드 지부

지부가 분리되기 이전에 레닌그라드 지부를 방문하던 날, 새로 침례 받은 자매 두 명이 영감에 찬 간증을 하였으며, 뒤이어 지부장이던 브라우닝 형제는 이 교회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이끄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어리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광신적인 신앙을 낳게 하며, 신앙이 없는 지식은 차거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식이 겸비된 신앙이 자신이 지닌 사랑의 근원이었음을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조그만 극장 건물 안에는 회원들과 방문자들이 말일성도가 모이는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힘찬 악수, 어깨를 잡은 손, 포옹과 사랑이 가득한 대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두운 실재를 밝혀 주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난 후, 여러 명의 학생들이 파벨 아가포노프로부터 어떻게 이 교회에 관해 듣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파벨은 미국에서 공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던 때인 1990년 3월에 교회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다. 예전에 그는 많은 교회를 방문해서 어려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파벨은 말한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참된 교회를 원했습니다.”

1990년 4월에 침례를 받고 그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같은 방 동료 두 명, 공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안드레이 크로모프스키와 세미프로 농구 선수이며 체육을 전공하는 블라디미르 세스타코프가 모두 교회에 들어왔다. 또 사범학교에서 공부하는 발레리 포마자노프라는 친구도 교회에 들어왔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감성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에서 얻은 친밀감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껴 보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열 두살된 로만 바틴은 레닌그라드 지부에서 최초로 집사에 성임된 형제 중에 속한다. 학교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미국인 친구인 선교사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는 선교사들이 매우 높은 인격을 가진 청년들이며 자기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

26세의 엘레나 스텔라야는 어린이 문화 센터에서 일하며 전기 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복음의 어떤 면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까? “저는 힘이 들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친구 및 새로운 희망으로 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릴리야 쿠프로바는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자마자 그 즉시 이것이 일생 동안 찾아왔던 것임을 알았다. 릴리야는 매주 교회에 참석했으며 나중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나왔다. 그녀는 9살된 딸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1990년 8월에 침례받았다. 릴리야는 남편과 이혼했으며 지금은 친정 어머니를 모시며 두 딸을 양육하고 있다.

일부 소련 성도들은 나라 밖에서 회복된 복음을 접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비보르그와 레닌그라드, 탈린 지부에서는 모임에 참석한 비회원의 수가 회원들 보다 많을 때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소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원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없다고 배워 왔다. 따라서 복음의 문자 그대로의 뜻인 “좋은 소식”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안드레이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종인 선교사를 보내 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기쁨을 상상해 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습니다.”라고 안드레이는 덧붙여 말한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과 그것이 가져다 준 소망으로 제 생활이 변화되었으며, 앞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

질스 에이치 플로렌스 이세는 앤서인의 부편집자이다.

# 자녀에게 봉사에 대해 가르침

“저희 아버지는 잉여 물품을 남에게 갖다 줄 때면 꼭 저희들을

하나씩 돌아가며 데리고 가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어느 신권 소유자의 말이다. “아버지는 저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나누며 봉사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인생에서 거의 매순간 우리는 각자 남에게 봉사하거나 남들의 봉사를 받게 된다. 남에게서 받는 것에 비해 남들을 위해 얼마나 베푸는 가는 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

매우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들은 간식을 만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만큼 충분히 만든다. “지금은 어린 자녀들까지도 ‘여분의 음식’을

누구에게 갖다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식을 먹는 즐거움 말고도 ‘여분의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이 추가된 셈입니다.” 그 가족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그 간단한 생각 속에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 있다. ‘여분의 음식’을 나누면서 성장한 자녀는 성장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남을 섬기는 지도자이셨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10:44)

부모들 역시 섬기는 지도자이다. 부부가 서로 비이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면 자녀들이 비이기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세주께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요한복음 5:19)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남편이나 아내로서 자신을 바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

남편으로서 여러분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할 수 있다.

- 가사일을 기꺼이 도와 준다.
- 자녀를 돌보아 준다.
- 특별한 필요(걱정, 긴장감, 피로, 병)가 있을 때 아내에게 신권 축복을 해준다.
-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구애 기간에 했던 것같이 대한다.
- 아내가 직장 및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아내의 생각과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로서 여러분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할 수 있다.

- 집안을 아름답게 꾸민다.
- 집안 분위기를 원만하게 만든다.
- 결혼 후에도 구애 기간에 했던 것처럼 남편을 대한다.
- 남편이 직장 및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남편의 동반자이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준다.
-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비이기적인 모범을 볼 때에 자녀들 또한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할 것이다.

자녀로서 여러분은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다음과 같이 봉사할 수 있다.

- 자신의 할 일과 또한 자유롭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유물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 가족들이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도록 한다.
- 요청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 가족을 사랑한다.

구세주께서는 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봉사의 본을 세워 주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35~40 참조)

### 가족에 대한 봉사

어린 자녀들에게는 도움이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조차도 서로에게 또한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부엌 일을 돕고 심부름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거나 정원일을 돕는 것과 같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봉사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며 봉사하는 가치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녀들이 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장하도록 돕게 된다.

또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은 자녀들이 더욱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나이가 좀 더 많은 자녀는 동생에게 자전거 타기, 공잡기, 숫자 세기, 놀이 또는 취미 활동과 같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학교 공부를 도와 줄 수도 있으며 이야기 책을 읽어 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중하는

어린이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 가르치는 것은 싸움과 다툼을 없애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모사이아서 4:14~15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이웃을 위해 봉사할 경우,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성도의 벗, 1976년 12월호, 1쪽)

### 이웃에 대한 봉사

어떤 투명스런 사람의 태도에 불쾌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선택한 이웃이 있다. “가족이 모두 태도를 바꾸어 슬론 씨에게 봉사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에게 집에서 만든 빵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의 손이 미치기 힘든 바깥쪽 창문도 닦아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전에는 슬론 씨가 웃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그가 웃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7살난 보비는 매일 방과 후에 그의 우편물을 모아주고, 12살된 수지는 슬론 씨의 개를 데리고 동네를 한바퀴 돌아 주며 15살인 피터는 그 집의 잔디를 깎아 주죠.

“슬론 씨에게 봉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족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슬픈 씨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여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봉사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히 남을 격려해 주거나 세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세상적이거나 지극히 작은 행동이지만, 진지하게 행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76년 12월호, 1쪽)

봉사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필요없다. 흔히 전화나 간단한 편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 봉사하는 이유 및 그에 따른 유익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서로 봉사하도록 가르치셨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익명으로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가족들이 일요일에 신는 구두를 닦거나 다른 사람의 침대를 정리하는 일 같은 선행을 은밀히 행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일에 당연히 따르는 훌륭한 느낌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또다른 방법들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봉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 후한 칭찬과 보상은 경계한다. 그러한 일들은 봉사에 따르는 고유한 대가를 너무 쉽게 변질시킬 수 있다. 특별한 보상은 자녀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기대할 수 없다. 서로 봉사하는 환경 속에서 사랑의 모범을 통해 성실하고 끈기있게 그러한 것을 익힐 때 자녀들은 기꺼이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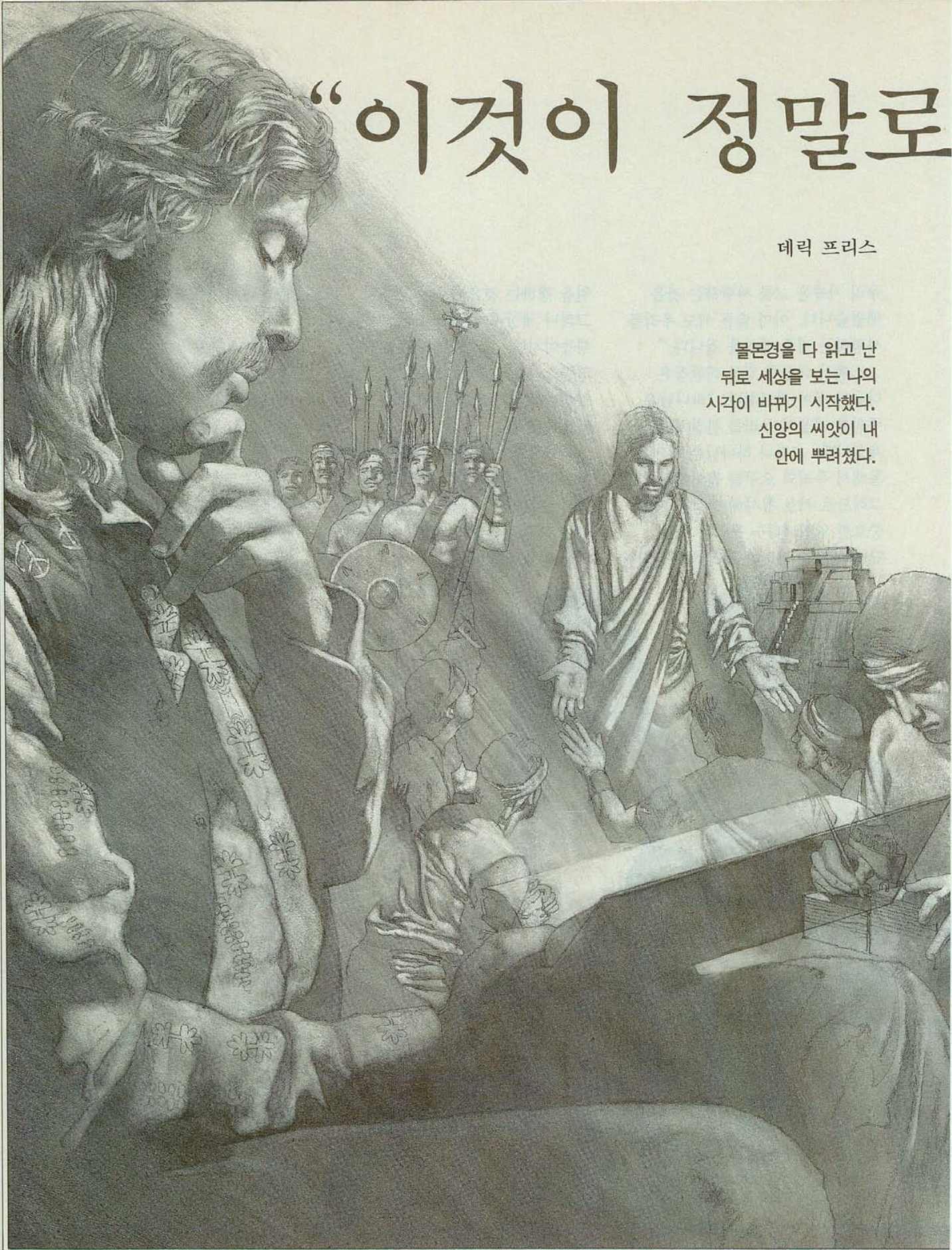
바로 오늘 시작한다! 가족이 함께 더욱 많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 이미 봉사한 일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



# “이것이 정말로

데릭 프리스

물몬경을 다 읽고 난  
뒤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신앙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다.





# 참된다면 어찌지?”

**선** 교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그분이 실망했던 것과 내게 하신 다음과 같은 질문은 잘 기억하고 있다. “형제님의 결정에 대해 부모님이 아십니까?”

물론 그분들은 모르고 계셨다. 나는 내 결정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날 감독실을 떠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휴, 일이 종결되어 기쁘군.”

내가 복음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의 가족은 매우 활동적이었고, 나는 모든 모임에 참석했으며, 세미나리 과정도 마쳤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교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전문 대학에 다니던 중이었으며, 취업을 하려고 했다. 내 두발은 그 당시 젊은 층에게 유행하던 히피풍의 장발이었으므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발을 하라고 하시자, 나는 집을 나와 삼일간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 그리고 이발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몇몇 와드 회원들은 내가 선교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나의 부모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말해 주었다. 와드내의 성인 회원들이 내 태도와 긴 머리카락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도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 나는 최근에 와서야 그들이 내가 자아를 발견하고, 내 삶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비록 장로 성임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교회의 장로 정원회 모임에 참석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장로 정원회 회장은 “우리는 형제님을 가정 복음 교사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다. “형제님의 동반자는 빌 브라더스 형제가 되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교회 건물을 나오자마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귀찮은 일을 벗어 버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빌 브라더스 형제가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동년배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성장하였다.

“우리는 서로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라고 빌이 물었다.

“그래.” 나는 투명스럽게 말을 던졌다.

“와드의 형제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정수를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전광석화처럼 내 뇌리를 파고 들어왔다. 그렇다! 와드의 형제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이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정수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나의 태도와 두발에 대한 와드 회원들의 비난을 잠재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빌과 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맡은 두 가족의 가장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지를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빌이 그들과 약속을 했다. 나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서로 우의있게 지내는 것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혹은 그 밖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스미스 형제는 “형제님들, 우리 가족은 물론경을 읽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읽는 내용을 자녀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형제님들이 우리에게 물론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줄거리를 연대순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스미스 형제님의 집을 나서면서 빌은 나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                |               |
|----------------|---------------|
| 내가 복음을 배우지 않아서 | 세미나리 과정도 마쳤다. |
| 그런 것은 아니었다.    |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교 |
| 나의 가족은 매우      |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
| 활동적이었고, 나는     | 것이 틀림없다.      |
| 모든 모임에 참석했으며,  | 그러나……         |

번 이상 스미스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언했다. 빌은 세 달 가량 있으면 선교 사업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떠나기에 앞서 몰몬경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기를 원했다.

빌은 또한 이더서가 연대기적으로 가장 앞서므로 이더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가 이더서의 상반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후반부를 전하기로 했다. 나는 이 임무를 쉽사리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이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좀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마지못해 그렇게하기로 동의했다.

나는 첫번째 방문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 부분을 재빨리 훑어보면서, 스미스 가족에게 충만한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내용을 기억했으면 했다. 그런데 스미스 형제 가족과 만나는 날에는 어떤 포근한 기대감 같은 것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빌만큼 준비가 잘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나는 다음번 방문 때에는 이보다 더 준비를 잘 하겠다는 각오로 그곳을 떠났다.

그후 두 달여에 걸쳐 나는 몰몬경을 다 읽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미스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읽었으나, 이윽고 나는 “만일 이것이 정말로 참되다면 어찌지?”하는 자문을 하기 시작했다.

니파이, 리하이 및 야콥으로부터 영원한 원리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방탕한 아들 엘마 이세를 위한 부친 엘마의 기도를 읽으면서 나는 나에 대한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힐라맨의 충실한 젊은 용사들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힐라맨의 영을 느꼈으며, 나도 그들만큼 용맹스러웠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내용도 읽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로나이서에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되며, 주님은 몰몬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리라는 것을 읽게 되었다. 모로나이가 특별히 나를 위해 그러한 메시지를 기록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몰몬경이 참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앙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이를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서 오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며, 또한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은 참되다는 것도 간증하고 싶어졌다. 나는 이러한 간증을 얻게 된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차를 몰아 툄선 감독님 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분은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라고 물으셨다. 외관상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고 머리카락은 전보다 더 길었지만, 내면으로는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선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툄선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를 거실로 안내하셨다. 그분은 서류 가방을 여시더니 내 선교사 추천서를 꺼내셨다. 그분은 한 칸만 빼고는 이미 서류를 완전히 작성해 두셨다. 그 한칸은 “언제 떠나시기를 원하십니까?”하는 첫번째 질문 부분이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툄선 감독님은 합당한 선교사 두발을 한 내 사진을 한 장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나는 곧 갖다 드리겠다고 확답을 드렸다.

나는 1972년 8월 4일에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나는 종종 회원들에게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지한 간증을 전했다. 나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공부하고 이에 대해 간구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한다면 그들 역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데릭 프리스는 산타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그로스몬트 와드에 살고 있다.

## 가정 : 영적인 성장의 중심지

**물**

몬경에는 힐라맨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운 신앙심 깊은 이천 명의 젊은이가 나온다. 힐라맨은 이들에 대해 “그토록 놀라운 용기는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기록한 다음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엘마서 56:45~47)라고 그 신앙의 근원을 밝혔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의 비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통으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 가치관을 배우고 전통을 만들며 남을 신뢰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기적과 가족]을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연차 대회, 1987년 4월)

###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둘

편모와 네 자녀로 구성된 우타도 가족은 볼리비아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 가게는 일요일에 장사가 가장 잘 되었다. 선교사들이 그 가족을 가르쳤으며 그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다. 침례받은 다음 주에 한 딸이 어머니에게 일요일에 가게를 열기 위해 집에 머물 것인지 물었다. 우타도 자매는 일요일에는 가게를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고객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그러나 가게의 전체 매상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서 복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후에 그녀는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으며, 복음을 가르치면서 계명에 순종하려고 한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였다. (산드라 스텔링스, “순종할 신앙”, 1987년 4월호, 25~26쪽 참조)

이 가족이 우선 순위에 둔 것들은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것들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며 그분을 기쁘게 헤드리려고 노력합니까?”(연차 대회, 1988년 4월)라고 질문하였다. 가정에서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 영적인 성장을 위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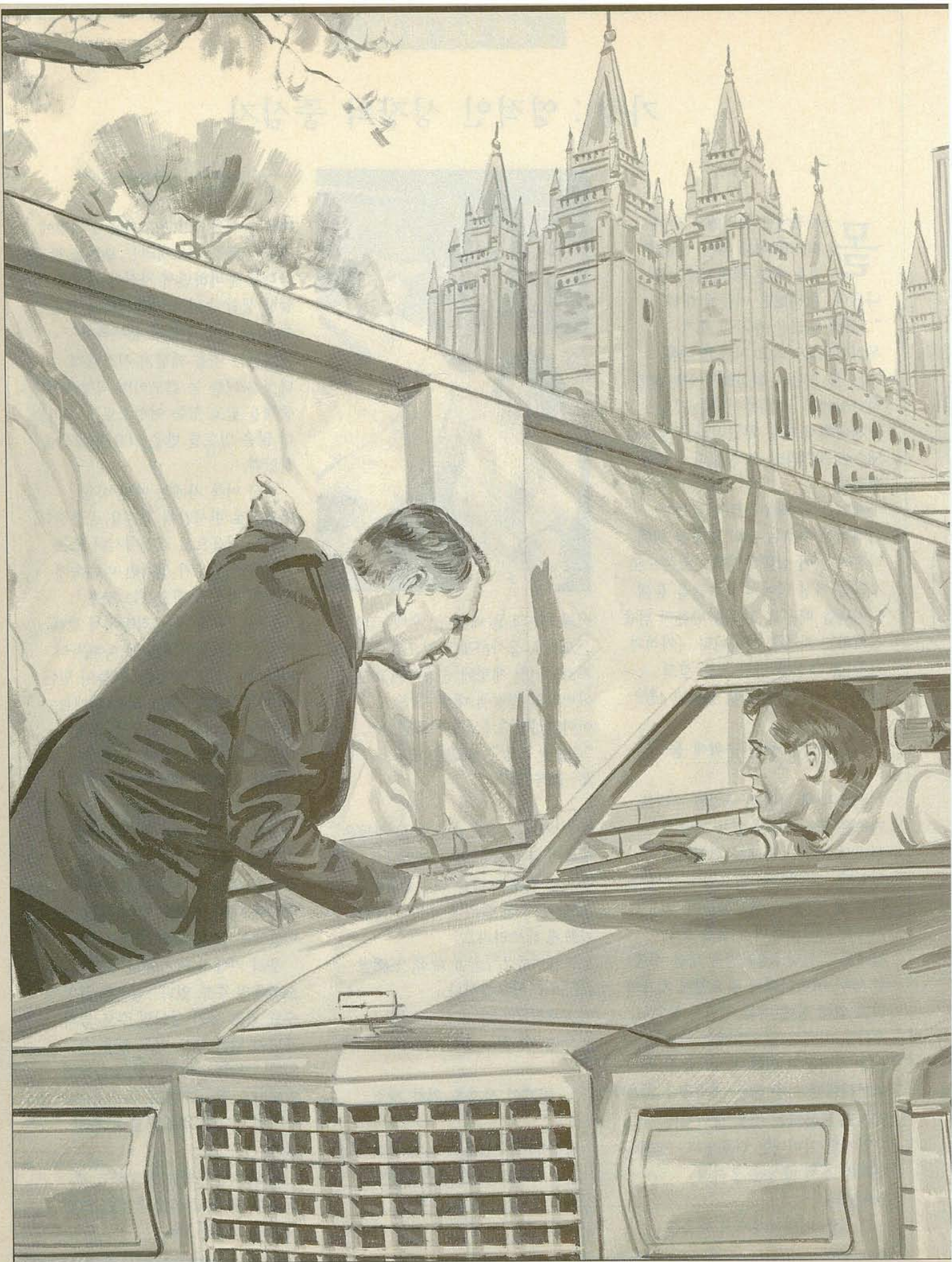
가정에서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면 그곳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는 마가렛

머독 자매는 상호부조회에서 경전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고 공과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경전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섯 자녀를 둔 편모이며 직장에서는 중책을 맡고 있는 여성으로서 그녀는 더 많은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지금 머독 자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시간씩 경전을 공부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장에서나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이제 저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그들이 믿든 안 믿든간에요.”라고 머독 자매는 말한다. 그녀의 직장 동료 중에는 태도가 불손하고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죠.”머독 자매의 말이다. 머독 자매는 가정에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마음에는 큰 평화를 느끼고 있다.

우리 가족이 대가족일 수도 있고 소가족일 수도 있다. 결혼한 부부일 수도 있고 독신 성인일 수도 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정을 영적인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교회는 어디에 ?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일** 마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중심가를 걷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커브길을 돌아 멈추어 서더니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세계 “물론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회 본부 건물과 웅장한 성전 및 역사적인 태버나클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 .....교회는 건물내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단정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예배당에 있습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직된 후 몇 년 동안은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성전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어느 아름다운 가을 저녁에 아내와 저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으며, 낡아서 미풍에도 덜컹거리는 유리창을 통해 저녁 햇살이 흘러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밝았으며 통풍도 잘 되었고 웅장했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그 건물을 건축하는 데 일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자 겸손해짐을 느꼈으며 심지어는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저는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부로 돌아와서도 그 건물에 대한 인상이 깊이 남아 저는 총관리 직원들에게 그 건물이 우리가 지닌 성전의 하나로 계속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이 다음과 같은 말로 저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그곳을 떠날 때, 이미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의식과 성약, 그리고 인봉의 열쇠를 수호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떠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웅장한 성전도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물만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기

# 가정교회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신권으로 아주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여러 집에 주님의 영이 거하도록 노력을 다해 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집들은 저에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서 한때는 큰 방 아래에 있는 욕실이 딸린 방 한 칸에서 산 적도 있었으며, 작은 아파트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 세 채를 소유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집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집에서 행복한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도 다시 돌아가 거기서 살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회는 가족 안에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가족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정답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가족 안에서 구세주의 가르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교회는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가족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과 편부모를 둔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 독신 회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가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독님이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족에는 대개 강하고, 가족을 돌보는 가장이 있으며, 그 가장이 신권 소유자이며, 그의 권세와 영향이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저 없는 사랑”(교성 121:41)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권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로 축복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할머니, 혹은 다른 사람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돌보면서도 성공한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족이 일반 가족과 다른 점은 바로

가족의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또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역경과 사별과 그 밖에 다른 문제를 겪을 때마다 서로 단합하며 지지합니다.

가족이 서로 하나로 뭉치는 데 크게 성공한 한 대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자,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좋은 모범을 보여 주고자 사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척이 되시는 조부모님, 아저씨, 아주머니, 조카, 사촌 등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조부모님이나 아저씨, 아주머니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관심과 격려 같은 격이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감과 자긍심 및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한 두 사람이 모자란다는 사실로 가족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활동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가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것들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 교회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따라서 가족은 항상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행한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로마서 8:27)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5)

청년 시절에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부름받았던



다윗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언하였음이니라”(사무엘상 16:1)라고 하신 성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예언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한 명씩 나이 순서대로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사무엘은 주님으로부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라는 말로 사무엘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번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자 그가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쑥이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사무엘상 16:10~13)

옛날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있을 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다니엘 1:8)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은 그런 마음 가짐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는 결국 하늘과 땅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마음 가짐을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윌라드 리차즈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리차즈 형제에게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면, 형제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리차즈 형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저에게 함께 강을 건너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함께 카테지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으며, 함께 감옥까지 가자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이제 와서 제가 형제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반역죄로 처형된다 하더라도 형제님 대신에 제가 처형되고 형제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형제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윌라드 리차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정사, 6:616)

엘마는 다음과 같이 신앙의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리라.”(엘마서 32:28). 계시는 지식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느낌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교리와 성약 8편을 보면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2절)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만일 주님이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차를 부탁하겠습니까? 아니면 새 집이나 건강의 축복을 부탁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부탁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이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 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열왕기상 3:5, 9, 11~13)

교리와 성약 64편에는 우리의 마음이 요구되는 것에 관한 아주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 주는 인간의 자녀의

진심을 요구함이니라.”(교성 64:22)

따라서 그때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제게 “물론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옳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저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교회는 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까라고 대답했다면, 그 여행자는 조금은 의아해 하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제가 실제로 가르쳐 준, 사랑스럽고 웅장한 높은 성전의 뽕족탑과 위대하고 장엄한 태버나클의 둥근 지붕과 그 밖에 다른 유명한 기념탑과 건물보다도 정확한 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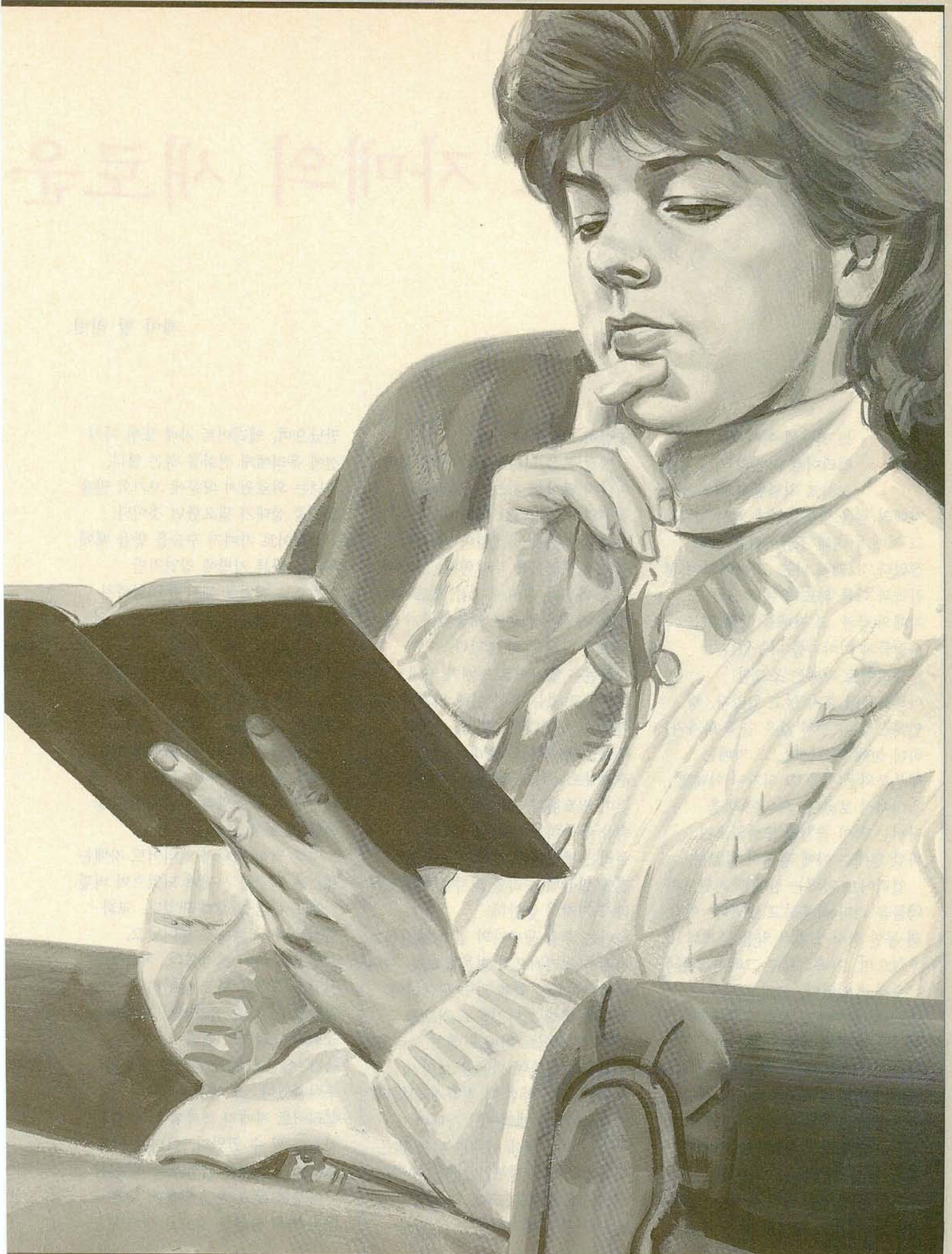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0~2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당과 훌륭한 교육 기구와 웅장한 성전과 가족 및 가정 안에 참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에베소서 3:14~19 참조) 저 또한 그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초기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당시의 베드로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때에 구세주께서 십이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십이사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복음 6:67~69) \*





# 엘리어트 자매의 새로운

제이 알 리만

나는 최근에 이사온 루스 엘리어트 자매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받고 엘리어트 자매의 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그 자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의 이전 감독과 다른 와드에 살고 있는 그 자매의 딸과 그 자매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리어트 자매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낡아 주저 앉은 안락 의자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 그 자매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의자나 아니면 침대에서 보냈다. 아파트 밖을 나서는 일이 좀처럼 드물었으며, 바깥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엘리어트 자매는 담배를 피웠으며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의사가 많은 약을 조제해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모나 태도 및 말씨에도 쓰라린 인생과 어려운 환경에 찌든 흔적이 엿보였다. 엘리어트 자매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교회 회원과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이 상처받은 여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회가 찾아왔다. 집주인이 엘리어트 자매에게 아파트에 칠을 하겠다며 가구를 밖으로 내놓도록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와드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와 함께 가구를 밖으로 내놓았다가 칠이 마르자 다시 들여 놓았다.

한번은 엘리어트 자매가 시내로 외출하고 없는 동안 아내 버지니아와 함께 그 주저앉은 의자를 수리해 주었는데, 의자의 뼈대는 그런 대로 괜찮았으나 새로운 가죽과 속에 넣을 것이 필요했다. 버지니아는 의자 속을 훌륭하게 채워 넣었으며, 우리는 엘리어트 자매가 돌아오기 전에 말끔히 수리한 의자를 아파트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나는 후임 동반자와 함께 엘리어트 자매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아내 버지니아와도 함께 자주 방문하여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다. 엘리어트 자매도 점차 우리의 우정을 받아들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친하게 되었다.

어느 봄날, 엘리어트 자매가 수술을 받을 때에 아내와 나는 많은 시간을 그녀와 함께 지냈다. 우리는 엘리어트 자매를 교회, 의사 사무실, 또는 가게로 데려다 주면서 매일

만났으며, 엘리어트 자매 또한 자기 전에 우리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그녀는 외로웠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엘리어트 자매가 수술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른 지방에 있었지만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주었다. 그녀는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후, 엘리어트 자매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 손자가 선교 사업을 떠나면서 담배를 끊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제 손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소망과 주님의 도움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였다.

여러 달이 지나자 엘리어트 자매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으며 바깥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교회 참석 횟수가 점차로 늘어났고, 십일조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십일조 결산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나는 엘리어트 자매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그 집에 들러 십일조 결산 준비를 하도록 부탁하였다. 그 이후로 나는 엘리어트 자매가 행복에 넘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다. 과거에 갖고 있던 인생에 대한 태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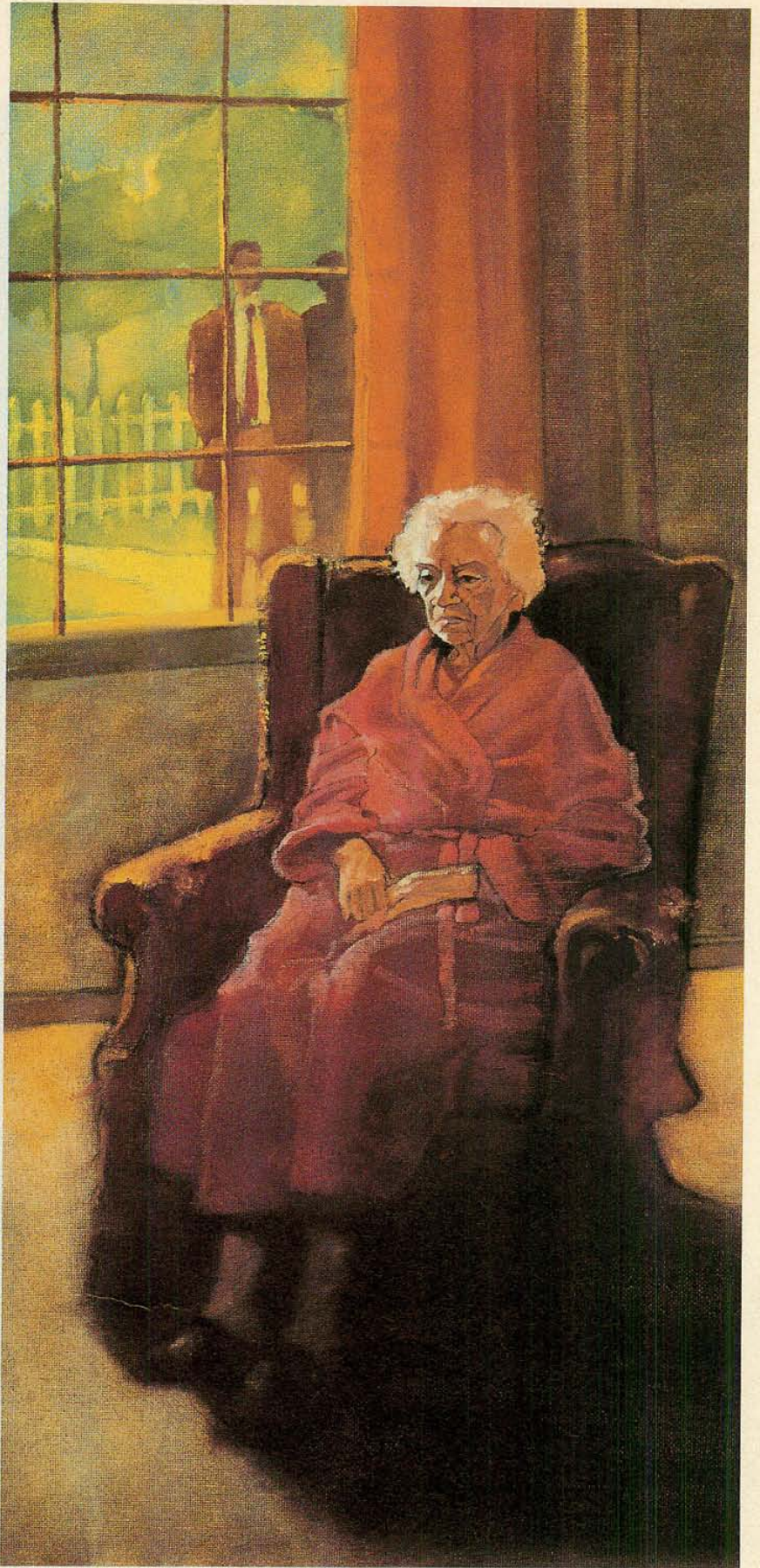
# 인생

삶을 비관적으로 보던 생각이 바뀌어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용서하게 되었다. 자녀들에 대한 관용과 사랑이 커지게 되자, 자녀들도 어머니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점차로 바꾸게 되었다.

엘리어트 자매는 나중에 아름다운 가구로 장식된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새로운 의사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습관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의지력과 주님께 의지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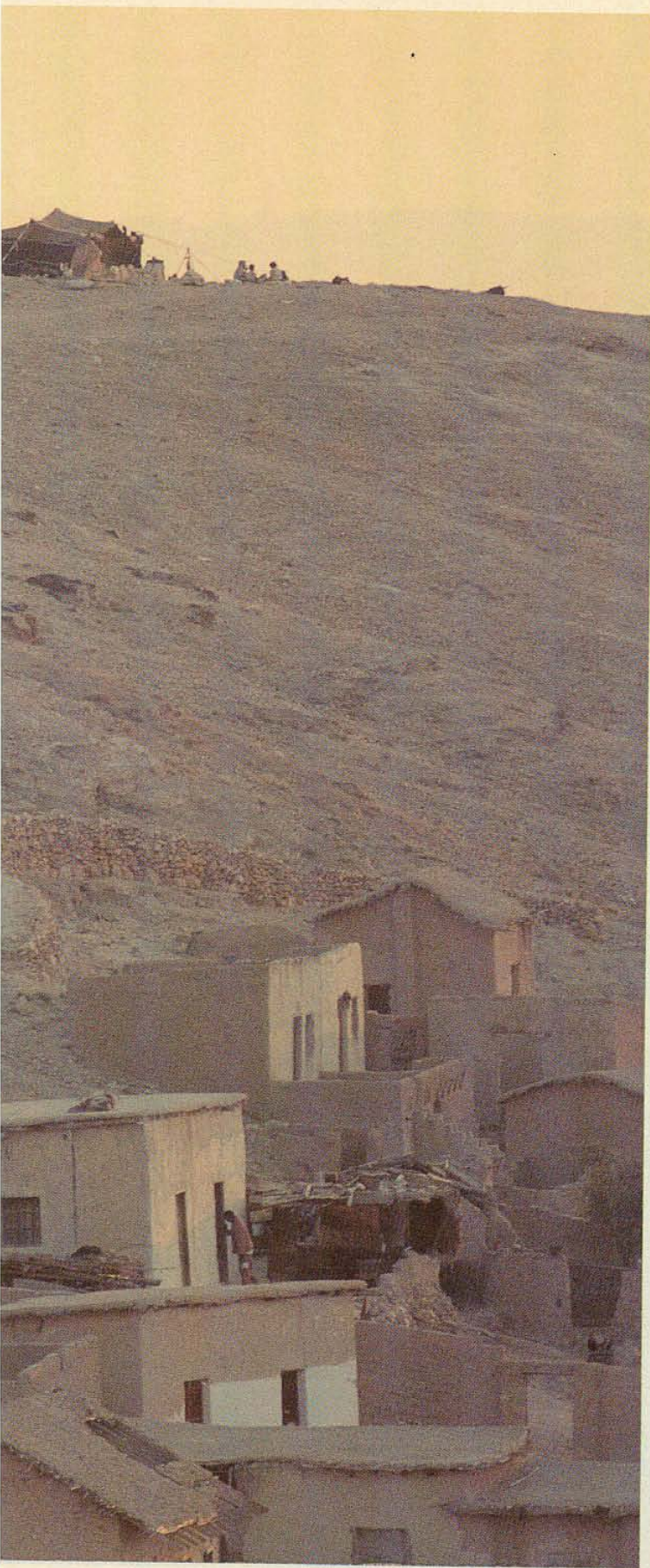
“새로 태어난” 엘리어트 자매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등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녀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는 “과거의” 엘리어트 자매도 “새로 태어난” 엘리어트 자매만큼이나 사랑하지만 그녀의 비참했던 생활로 인해 슬픔을 느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녀의 인생이 복음 생활에 따른 충만한 축복으로 인해 행복해졌기 때문이다. \*

제이 알 리만형제는 교사이며 캘리포니아 치코 스테이크의 축복사이다.





돈 소프 사진



# 예수님이 살았던 땅

## 제 2 부

**1** 991년 9월호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부터 초기에 갈릴리 지방에서 성역을 베풀 때까지 사셨던 곳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예수님이 생전에 다니셨던 곳 가운데에 특기할 만한 장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면, 신약에 나오는 여리고로 가는 길(왼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길과 여리고 도시를 잘 알고 계셨음이 틀림없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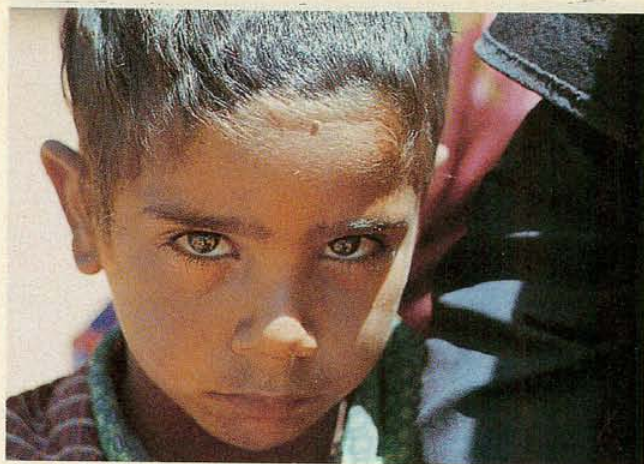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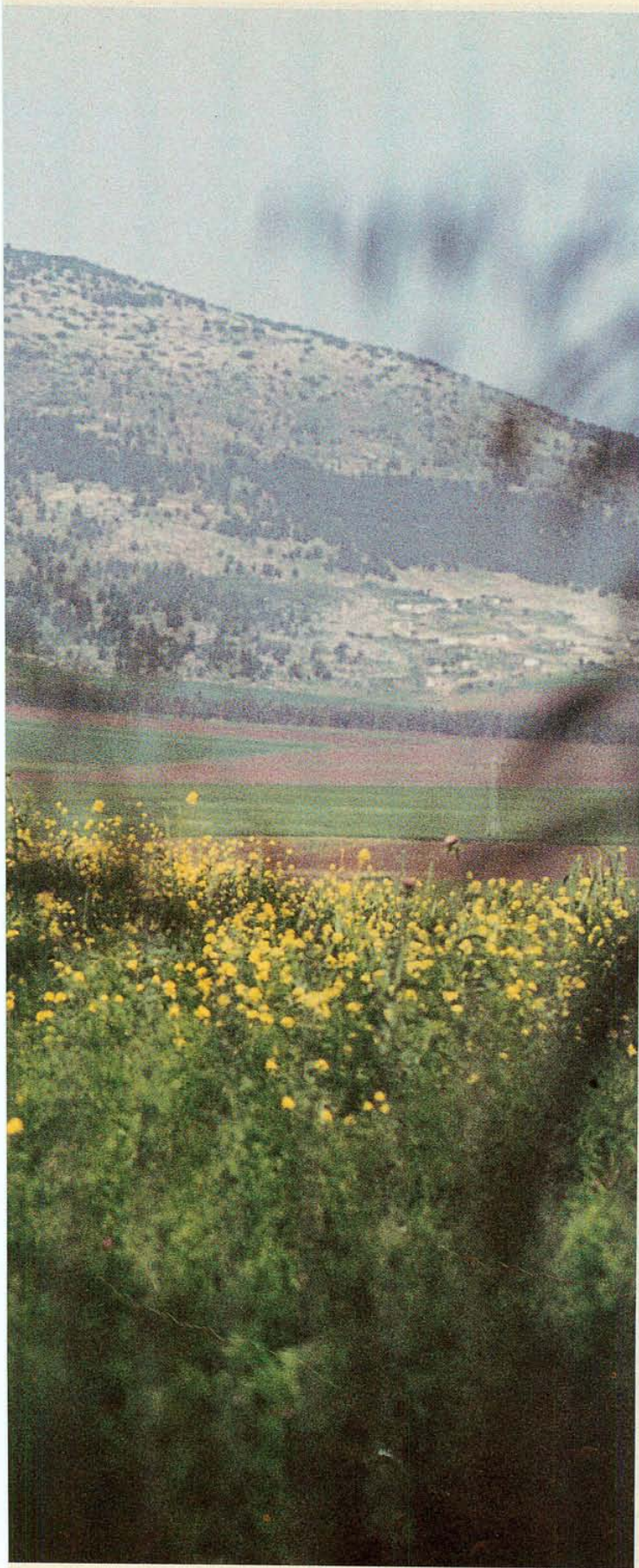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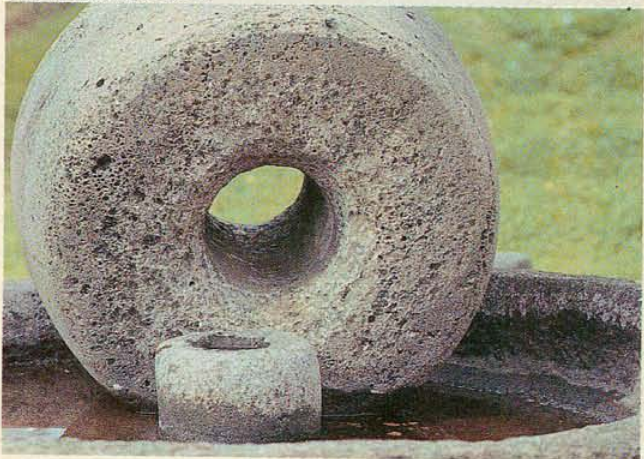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누가복음 19:1~6)



돈소프 [다불산]



윌리엄 에이 셰퍼메이어 사진 [어린이]



윌리엄 플로이드 홀드먼 사진 [올리브 착즙기]

갈릴리 아래 지방의 예스릴 계곡 위로 솟아오른 다불산(왼쪽)은 그리스도의 변형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추측된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높은 산”이라는 구절이 실제와 꼭 들어맞는다. (마태복음 17:1~2 참조)

1979년에 이 산을 방문하셨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는 이 산이 예수님께서 그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장소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위)가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발전시키도록 자주 권고하셨다. 한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올리브 기름은 여러 세기 동안 안수와 질병 치료 및 불을 밝히는 데에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향수의 기본 재료로서도 이용되었다.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에도



연음 [가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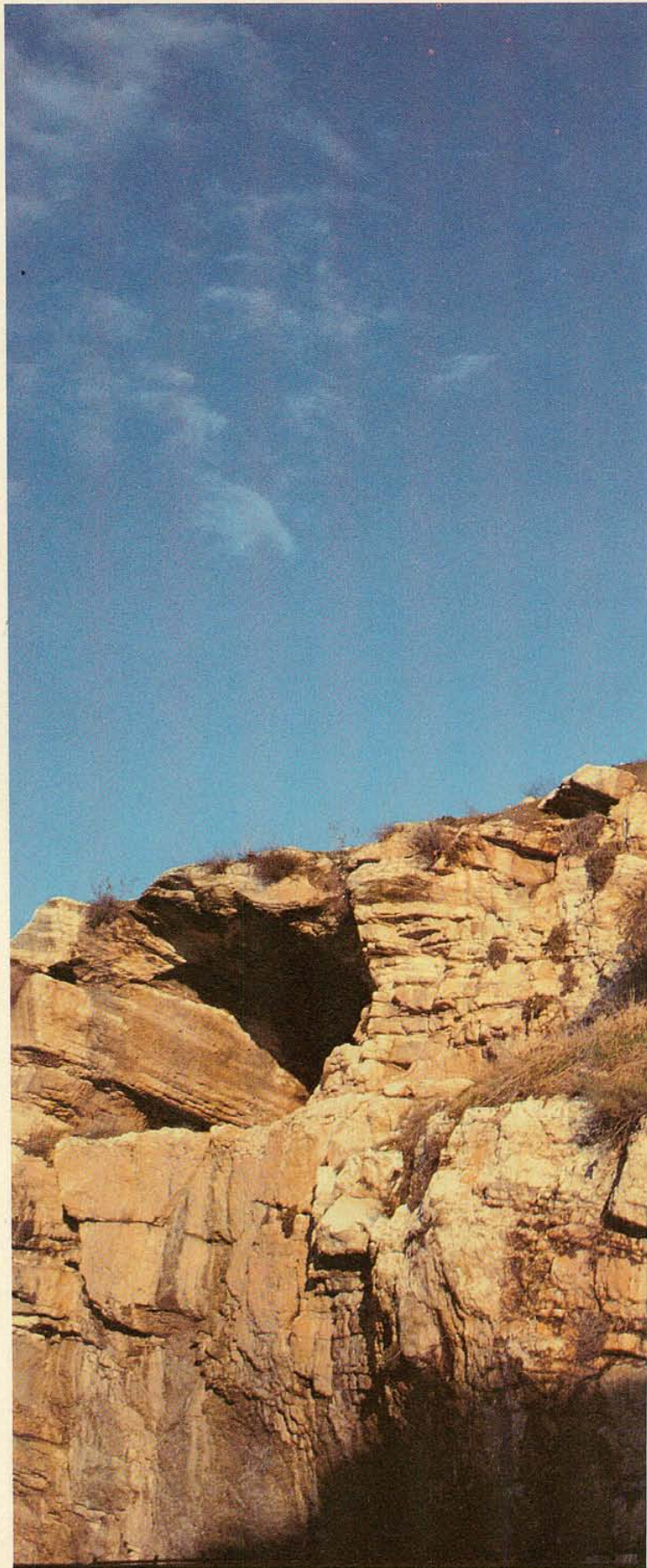
윌리엄 풀콕이드 홀드먼 사진 [갯세마네]

가버나움에서 볼 수 있는 것(아래)과 비슷한 착즙기의 회전 돌바퀴 아래에 올리브를 넣어 쥐어 짜서 기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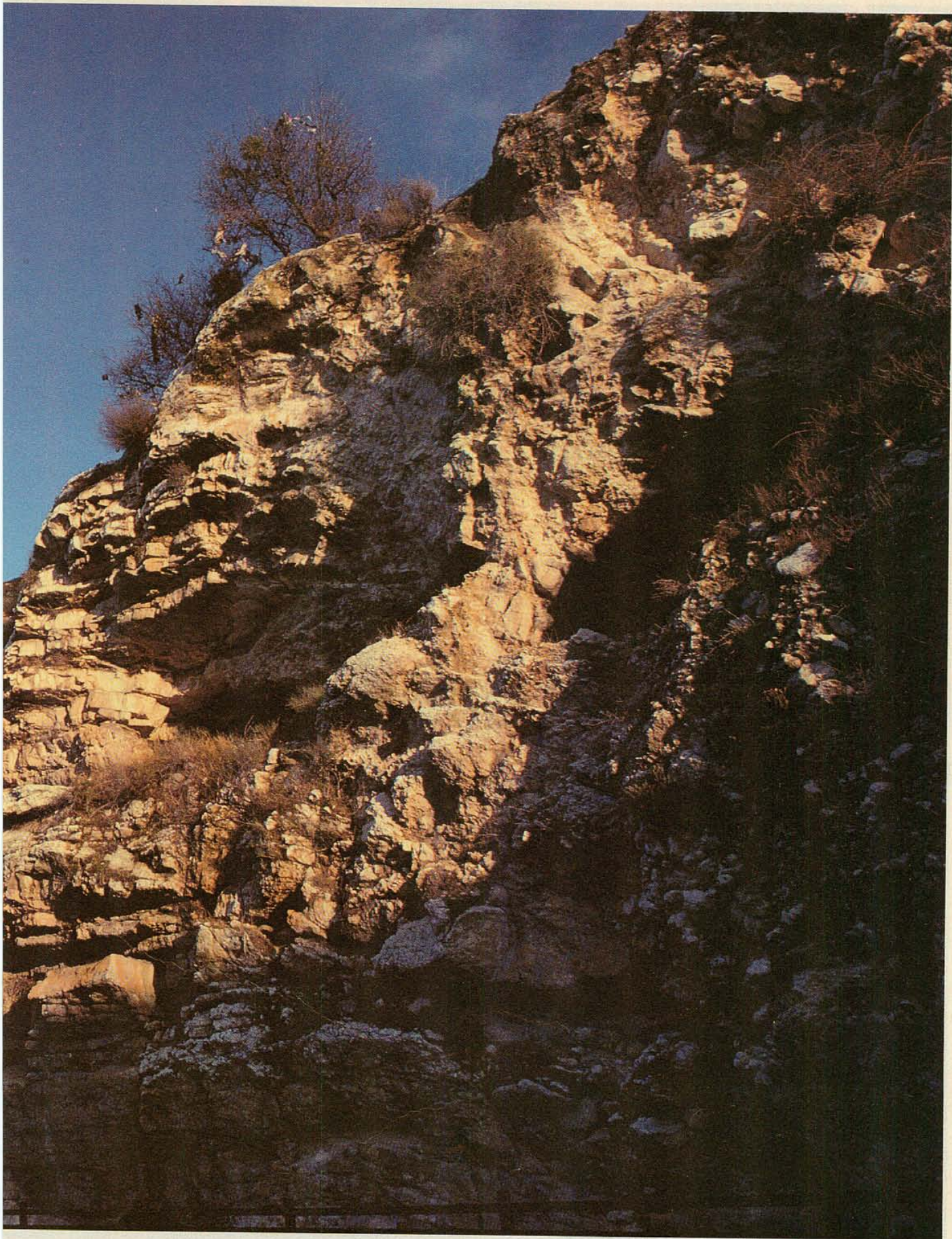
오늘날 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위)는 구세주 시대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구세주께서도 가르치실 때 그것들을 언급하셨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하는 모욕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마태복음 27 :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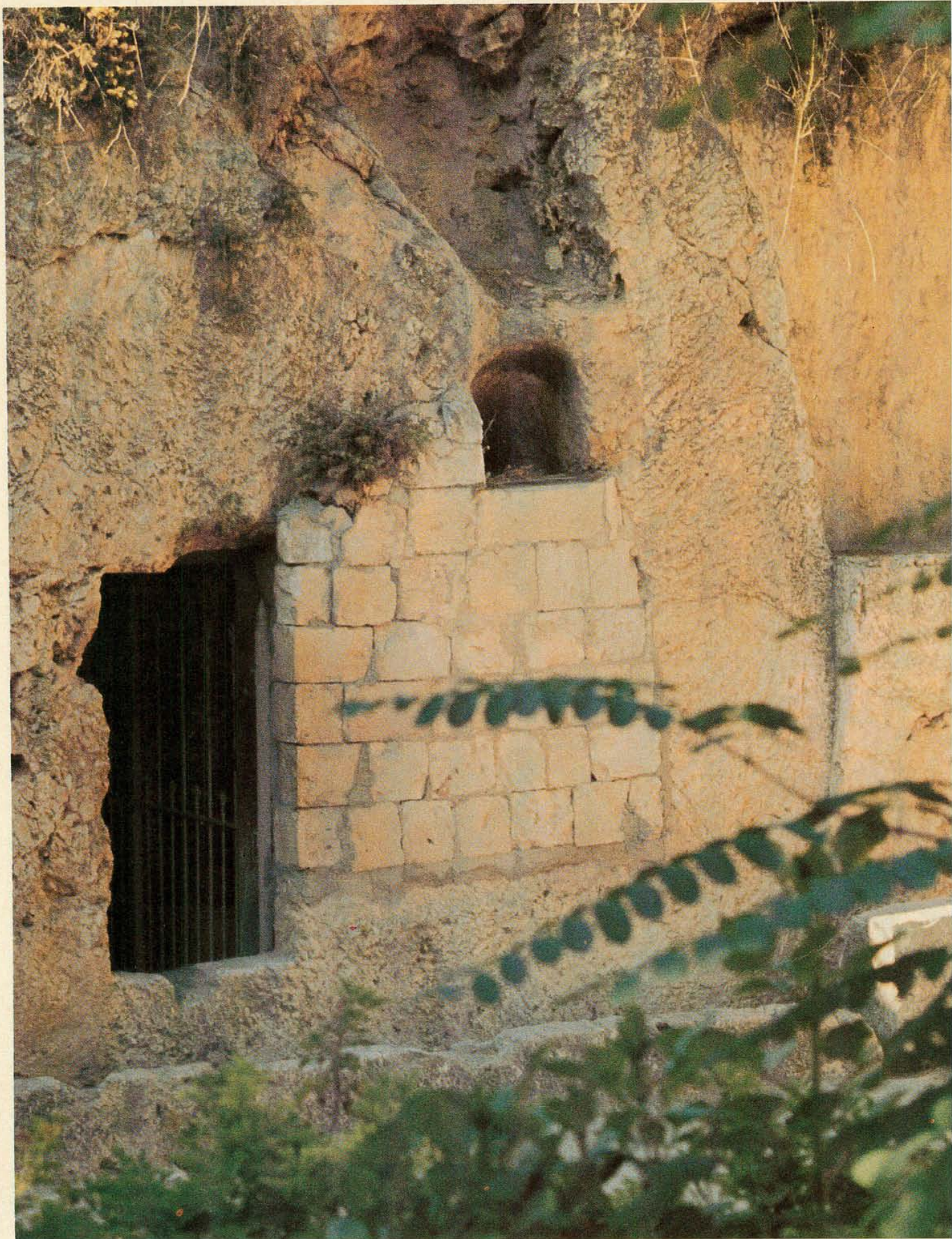
재판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감람산의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마태복음 26 : 36; 누가복음 22 : 41, 44 참조)되도록 고통을 받으셨다. 속죄가 있었던 실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예루살렘 동쪽 벽에서 약 23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감람나무 정원(아래)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예수께서는 “끌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끌려 가서 “십자가에 못









리마 시 베레트 사진

박”히셨다. (마가복음 154 : 22, 25)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 옛 성곽의 북쪽에 위치한 바위 언덕(오른쪽)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거기 두니라”(요한복음 19 : 41~42)

전통적인 묘원(왼쪽)이 골고다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는 두 개의 조그만 방이 있는데, 한 방에서는 친척들이 모여 애도를 하였으며 다른 방에는 시신을 놓은 “침대”가 있었다.

무덤 입구에 “바퀴” 같은 커다란 돌이 있어 땅에 파인 홈으로 굴러 넣어 무덤을 봉하게 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려 했던 바로 그 돌이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숫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숫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마태복음 27 : 62~66)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마가복음 16 : 1, 3~4)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 : 3~6)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필멸의 몸을 봉하기 위해 있던 돌이 굴러 내려 구세주의 부활에 대한 움직임 수 없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

# 존경할 만한 사람

자넷 토마스

**무**엇보다도 손 브래들리는 키가 크다. 그것도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다. 손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게 될 거인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일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경악케 할 정도로 키가 크다.

손 브래들리는 대학 1학년생인 농구 선수로 키가 2미터 28센티미터이다. 그는 그 큰 키만큼이나 내면적으로도 무르익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인생에 대한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성숙한 자아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신장을 보게 된다.

반면에 손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제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위압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짓는 표정을 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열 세 살에 벌써 키가 1미터 87센티미터나 되는 손의 동생 저스틴은 “맞아요, 키가 2미터나 되는 사람들을 봐도 그다지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의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손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2미터 43센티미터의 거실 천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다. “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을 수그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십 년 전에 지은 것인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이 정도로 키가 클 줄은 모르셨습니다.”

손이 머리를 낮추는 것을 깜빡 잊기라도 할 때면 이 문은 문제를 일으킨다. 손은 가끔 저스틴과 함께 남자 형제들이 흔히 그렇듯이 데슬링도 하고 서로 쫓고 쫓기는 장난을 한다. “저스틴을 뒤쫓다가 가끔 제가 실내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티됩니다. 머리가 분에 팽하고 뚜릿지며 저는 바닥에 들어눕게 됩니다.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세계 부딪히니까요.”라고 손은 이야기한다.

손의 어머니 테레시는 집안 시설을 몇 가지 고쳐야 했던 경우를 이야기한다. “손이 볼 수 있도록 욕실 거울을 더 높이 달아야 했고, 또한 2미터 43센티미터나 되는 침대를 주문해야 했어요. 손은 농구단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호텔 침대에서 자고 나면 집에 오지 못해서 안달을 한답니다.”

“여행 중에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라고 손은 말한다.

친구들과 가족은 손의 키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지만, 손과 함께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상점에 갈 때면 가족들이 저를 곤란하게 합니다.”라고 손은 마치 불평이라도 하듯 이야기한다. 그러자 저스틴과 여동생인 타샤(15살)와 아드리안(9살)은 손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빙그레 웃음짓는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걷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약 칠팔미터 뒤에 따라오면서 모두가 저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고 말합니다.”

여동생 타샤는 “그때 오빠의 표정을 설명해도 믿지 못하실 거예요.”라고 말꼬리를 잇는다.

그처럼 어디를 가나 화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지쳐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손은 이렇게 답변한다.

“물론 귀찮아 할 때도 있지만 손은 그것을 좋아해요.”라고 손의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인 커린 퍼그마이어는 말한다. “손은 그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기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겪은 일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키가 큰 것이 좋습니다.”라고 손은 말한다.

“사람들이 늘 저를 쳐다보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데는 실증도 나지만, 제가 믿는 신앙과 가족을 위해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저이니깐요. 제 키는 2미터 26센티미터이고 그 무엇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족과 코치 선생님은 제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어진 상황을 선용하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면만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껏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며, 남은 생애 동안도 그런 자세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손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돋보인다. 손은 자신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부모님 덕분이라고 부모님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

테레사와 라이너 브래들리는 병원에서 만났다. 테레사는 친구를 방문하러 왔고, 라이너는 병원 노역부로 근무하면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다. 라이너가 테레사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 테레사는 “와, 이 남자 정말 키가 크구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신장이 182센티미터인 그녀는 늘 자신의 키를 의식했다. 라이너는 키가 2미터나 된다. “남편은 제가 친구에게 알려준 전화 번호를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라고 테레사는 이야기한다. 일 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그 부부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독일에 주둔하는 동안 손이 태어났다. 의료 기술자 학업을 마친 뒤 라이너는 다시 가족을 데리고 테레사의 고향인 유타주 캐슬 테일로 이사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아담한 마을 분위기를 원했던 것이다.

“자녀들이 여러 방면에서 원만히 성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중에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에 대한 훌륭한 배경을 쌓을 수 있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일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은 거의 너무 많다고 할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아이들도 집안의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다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방법을 ‘다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라고 손이 말을 가로막는다. “저희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합니다. 대부분의 잔일들을 기꺼이 하고 있지만,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한 밖에 있는 가족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젖소는 축축히 젖어 있고 불결하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아침 6시에도 밖으로 나가 젖을 짜야

합니다. 그 일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손은 이른 아침에 뽀뽀 얼어붙은 외양간에서 홀로 젖소와 마주 대해야 하는 날도 있지만, 그 밖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가족으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는다. “저희는 손의 뒤에서 그를 지지했지 손에게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습시다. 저희 가족이 손에게 어떤 스포츠를 하라고 부담을 준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라이너는 말한다.

손은 야구를 좋아하며, 중학교 시절에는 미식 축구를 했는데 부상으로 무릎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골프팀에 속한 적도 있다. 골프팀은 8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만 신청을 했다 “결국 그들은 저를 끌어 들여야 했습니다.”라고 손은 말한다. 그 밖에도 손은 승마와 암벽 등반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수상 스키도 즐긴다.

“라이너는 운동 신경이 대단히 발달했어요.”라고 테레사는 이야기한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손을 안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침대에 농구 공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손이 집에 와 처음으로 본 물건이었죠.”

손은 어깨를 으쓱이면서 웃는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손이 농구에 재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아주



일찍부터 알았습니다.”라고 라이너는 말한다. “저는 스테이크 센터에서 이른 아침이면 와드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공 놀이를 했습니다. 손에게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죠. 당시 손은 열 한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아침마다 스테이크 센터에 가서 어른들과 함께 경기를 했습니다.”

십대 초반이었던 어느 날, 손은 아버지와 단 둘이 가진 경기에서 승리하였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아버지가 이기실 때면, 저는 기분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번 경기에서는, 아버지는 제가 이기도록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이길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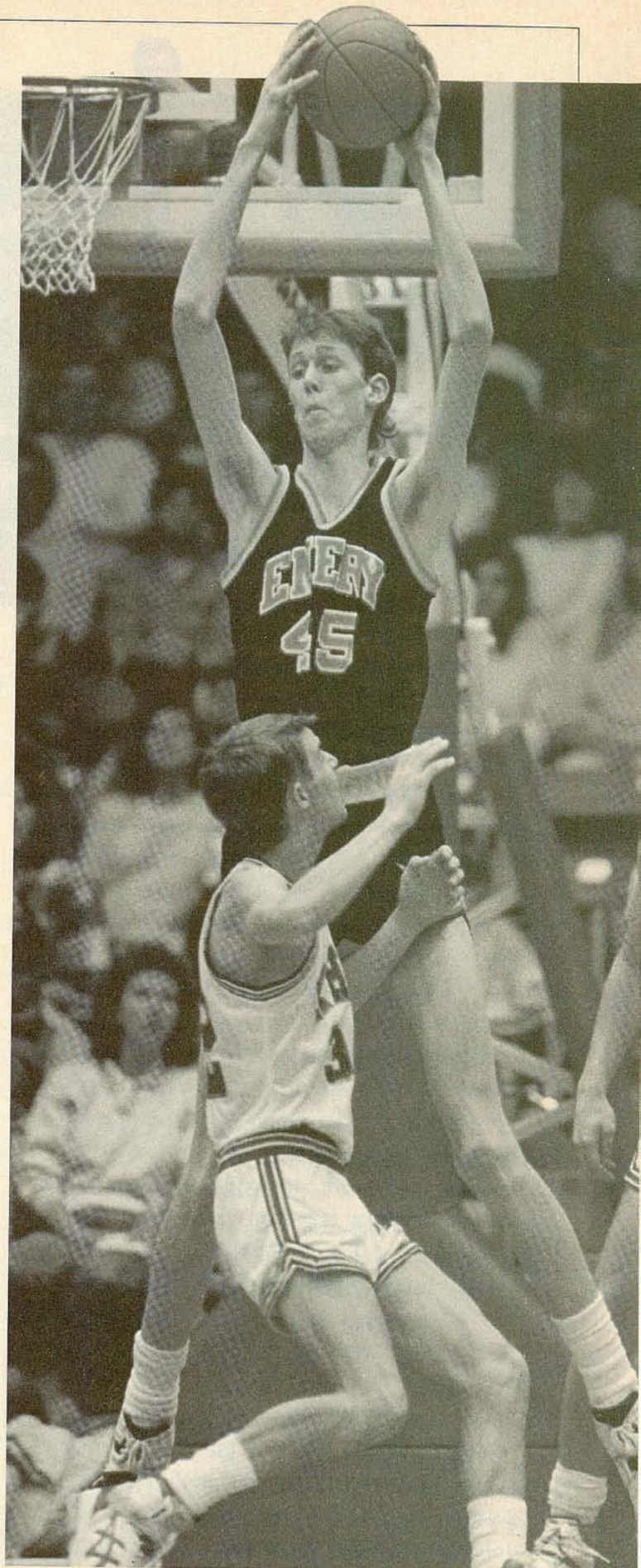
하지만 손은 그의 남동생 저스틴에게는 그다지 관대하지가 않다. 그는 형을 이기고 싶을까? 저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저스틴의 궁극적 목표입니다.”라고 테레사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손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스틴이 저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라고 말한다.

물론, 손의 농구에 대한 재능은 널리 알려졌다. 중학교 시절 이래 그는 국민의 관심을 끌어 왔다. 여러 대학의 신입생 모집 담당자들이 캐슬 데일에 찾아와서 손을 그들 대학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할 때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그의 가족의 역량이 큰 도움이 되었다. 손의 아버지인 라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 선발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 일에 대처하여 나중에 불만족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유익한 토론을 하였으며, 매우 훌륭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선발 과정 시초부터 손은 자기 요구 사항중 하나는 분명히 밝혔으며, 만일 학교측에서 이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조건은 손이 열 아홉 살이 되면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선교 사업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손과 대화를 나눈 모든 대학들이 이에 동의했다. 손이 학교를 선택하자 가족들은 모두 그의 결정에 동의했다. 테레사는 아들이 집에서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한





똑같이 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나는 네게 몰몬들도 그저 보통의 사람들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제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몰몬이거든.’ 이 말이 그 친구를 당황하게 했나 봅니다. 며칠 후, 그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상에 대해 좀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순결을

것이 기쁘다고 말한다.

상당수의 예비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손 역시 선교 사업을 하게 될 몇몇 지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라고 손은 말한다. 그러나 손의 어머니는 “손의 체중이 늘어나도록 선교사들을 잘 먹이는 나라로 가게 되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다. 손은 키에 비해 너무 몸이 말랐다. 그의 체중은 95킬로그램인데, 체중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을 늘리는 일은 정말 힘이 듭니다.” 손의 말이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저 다른 곳에서 먹고 생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오한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다. 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다.

손은 열 다섯 살 때에 전미 고교 최우수 선수 120명과 함께 농구 국가 대표 합숙 훈련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유타주에서 온 두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새로 사귄 친구 하나가 몰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제게 ‘너희 교향에는 몰몬들이 많지, 그렇지? 그들을 만나니? 그들 가까이 사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래, 맞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늘 그들과 만나고 있어. 몰몬들도 너나 나 같은 사람이야. 그들도 정상인들이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옷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우리와 같아. 이야기도 우리와

지키며, 음주나 흡연을 금한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 다섯 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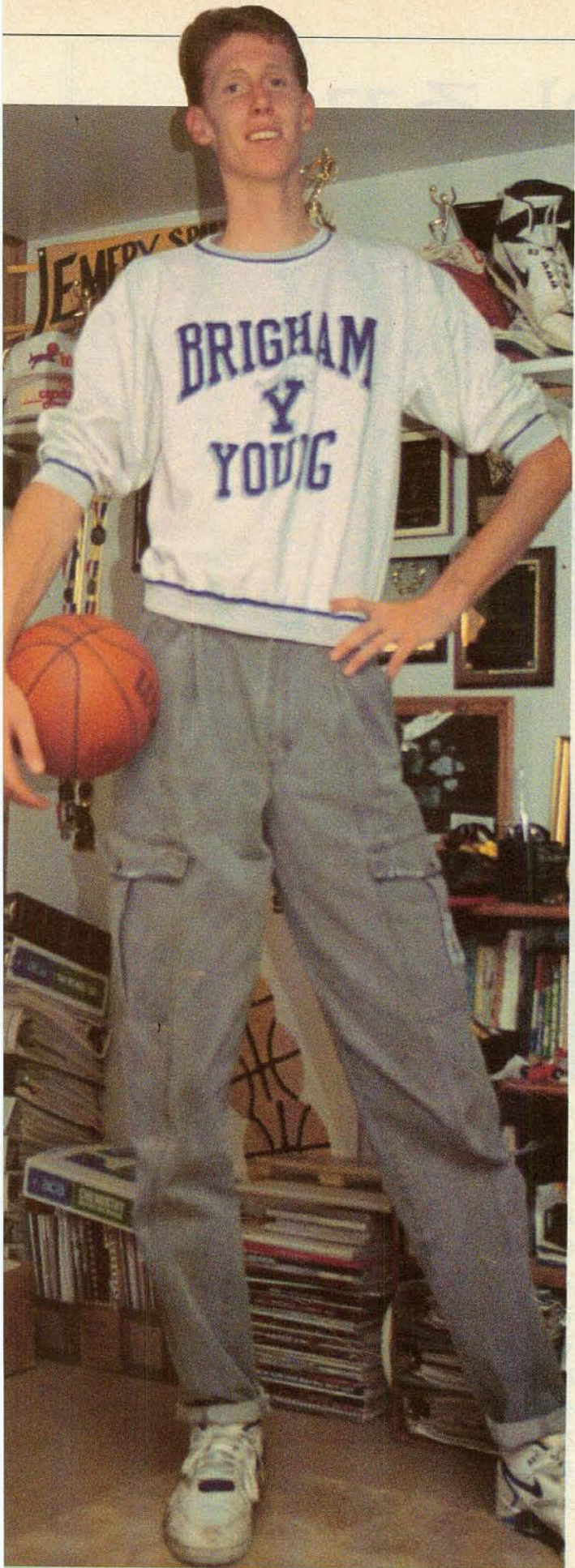
“제가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요셉 스미스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간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 사업의 방편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점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이 참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손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국영 텔레비전과 같은 인터뷰 외에도 노변의 모임에도 자주 초대된다. 그의 친구인 커린 퍼그마이어는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교회에 관해 이야기했던 말을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의 말을 들으면 그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미사 여구를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손은 대단히 강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은 친구들을 무척 좋아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이미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저는 그들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인격보다는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저를 알고자 할 때 그러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경우 성신이 제게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커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손이





거만하지는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간혹 어떤 잘못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손의 소속 와드 감독인 스코트 조한슨은 이렇게 말한다. “손은 조용하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형제입니다. 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지금보다 키가 조금 작았더라도 훌륭한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손의 친구인 빌 라이트는 손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냐는 질문을 받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친구예요. 2년 전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친구들 중 손만이 장례식에 와 주었어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은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죠.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늘 제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느냐고 묻자 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높은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누구에게든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서 소중히 여기듯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왜 손이 사람들을 그렇듯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될 것이다.

한편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파하는 손의 능력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인 니파이서서 2장 11절과 관계가 있다. “만물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라고 손은 이야기한다. “만일 무언가가 잘못 되어 가면 저는 ‘그래, 만물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어. 이 일은 상대적인 경우야.’라고 자위하죠. 그러한 일은 곧 잊어버리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손은 복음 원리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 가야 할 지를 습득하였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그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 손 브래들리는 장신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

본 기사가 쓰여진 후, 손은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 유끼오와 준꼬 후지다께

독창적인 가가호호 방법

짐 마쯔모리

여러분은 아마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 생각하면서 뜨개 바늘, 칼을 가는 도구, 혹은 불교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 등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끼오와 준꼬 후지다께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사는 유끼오 후지다께와 그의 아내 준꼬는 1973년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 전까지는 불교도였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우베 지부에서 봉사하며 우베 지부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후지다께 형제는 지부장, 고등평의원 및 스테이크 선교부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후지다께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장, 초등학교 회장, 그리고 독신 성인 의장으로 봉사하였다.

1987년 7월, 후지다께 형제는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아내 준꼬와 함께 일본 동경 남 선교부에 들어가 일본에서 봉사하는 첫 현직인 부부 선교사가 되었다.

다소 특별한 방법을 활용하여 후지다께 부부는 20명에게 침례를 주고 활동이 저조한 20명의 회원을 재활동시키는 데 산파적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무료로 칼을 갈아 주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단 칼을 갈아 주면서 그들과 사귀고 나면 후지다께 형제는 또다시 찾아와 칼을 갈아 주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으며, 후지다께 자매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스웨터를 떠주기도 했다.

이처럼 가가호호를 하여 봉사하면서 후지다께 부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는 했다.

우정과 봉사가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에 감동되어 교회에 관해 알게 되었다. 전근하는 지역마다 어느 곳에서든, 후지다께 형제는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면서 깨어진 유리창 또는 문을 고치고 선반, 카운터 혹은 옷걸이를

설치했으며, 동시에 후지다께 자매는 카라멜 사탕을 만들어 그것을 포장하는 일과 같은 봉사를 하고는 했다.

일본의 지배적 종교는 불교인데 유끼오와 준꼬는 불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후지다께 부부는 또한 같은 선교부의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했다. 그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선교부 경계내의 모든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봉사했으면 하고 희망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 후지다께 형제는 현재 오카야마 야마구찌 지방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후지다께 자매는 그곳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있다. \*

짐 마쯔모리는 일본 동경 남 선교부 선교부장을 역임했다.



### 예루살렘의 금빛 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마태복음 21 : 8~11)하신 전래의 부지에 7세기경 세워진 금빛 문 또는 동쪽 문은 1530년 이래 봉해져왔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성을 들어가실 때에 그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소** 련 연방에서 여러 성당 및 교회들이 개혁과  
쇄신을 겪듯이, 회복된 복음은 그곳  
사람들에게 갱신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준다. “소련에서의 주님의 복음”, 10쪽 참조